

독일통일과정에서의 동서독교회의 역할을 통해 본 북한 교회 세우기의 과제*

A Critical Assessment of the German Churches Roles for the Unification of Germany for a New Approach for Building Christian Communities in North Korea

송 훈 (Hoon Song)**

ABSTRACT

The unification of Germany in 1990 was a monumental event for world peace and reconciliation, followed by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and a relevant and promising model for peace and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Moreover, The churches in the West and East Germany cooperated to ensure the unity of German churches and increased people's hope for national unification and peace. The exemplar endeavors of German churches had shown the responsibility heavily raided upon Christians' shoulders for peace and reconciliation. However, German churches in the age of the new Millenium have been facing challenges of conflicts between people had lived in the West and the East and a strong wave of secularism. These conflicts show how hard it is to achieve people's integrity after political and economic unification. Also, the leaning of churches in the old East regions shows how ideology can cleanse people's religiosity even after the decline of the communist regime.

Hence, it is needed to critically analyze the roles of churches during and after the German unification to present a new idea of missions toward North Korea from a missional perspective. This paper aims to provide historical evidence that missions toward North Korea should be an integral mission for the well-being of North Koreans based on evangelical efforts to build Christian communities in the North from this critical assessment of the German case.

Key words : missions toward North Korea, unification of Korea, German churches, peace, reconciliation, evangelism

* 2022년 5월 16일 접수, 6월 3일 게재확정

** 송실대학교 (Soongsil University) 평화통일연구원 초빙교수, 서울시 상도로 369, meersong@ssu.ac.kr.

서론

많은 학자들이 한반도의 통일 과정에 있어서 먼저 통일을 이룬 독일의 경우를 반면교사 삼아서 한반도 통일의 로드맵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을 한다. 교회의 경우에 있어서도 동서독 교회의 통일 노력을 본받아서 교회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적극적인 관여와 통일 이후에도 사회 통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 방식과 정책에 있어서는 복음주의 교회들과 일명 에큐메니컬 진영 사이의 첨예한 갈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조선그리스도교연맹과의 관계, NGO 기관을 통한 선교와 그 원칙, 교회 개척의 정당성과 가능성의 문제들에 대해 두 진영 간의 갈등은 현재진행형이다.

이러한 갈등 상황 속에서 복음주의 교회들은 과거 북한지역에 설립되었던 교회를 재건하겠다는 북한 교회 재건 운동의 좁은 개념의 복음 전도를 확장시켜 다양한 화해, 용서, 일치를 추구하고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의 향상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선교적 관점에서 북한선교를 이야기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교회 건물의 재건을 넘어서서 북한의 기독교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이들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 사회에 헌신하고자 하는 전문가 그룹의 준비까지 이어지는 담론으로 발전되고 있다. 아직까진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필자는 이러한 선교적 접근에 따른 북한선교를 과거의 흡수 통일을 전제로 하는 북한 교회 재건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북한 교회 세우기로 명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북한 교회 세우기의 역사적 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한 예로 통일과정과 그 이후의 독일 사회의 통합 과정에서의 독일 교회의 사례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보다 바람직한 북한 교회 세우기의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독일 교회의 현상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복음전도를 기반한 사회적 책무를 강조하는 북한 교회 세우기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I. 독일 개신교회와 독일의 분단

독일 통일에 있어서의 동서독 교회의 역할과 그 이후의 통합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독일 교회의 역사와 전통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독일교회는 루터의 종교개혁, 아우구스부르크와 베스트팔렌 협약 이래로 정부와 교회가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몸처럼 서로 협력하는 공교회의 형태를 띄어왔다. 또한 종교개혁 시기 황제권의 몰락과 더불어 제후들의 권력이 강화되면서 제후들은 자신들의 영지 내의 종교를 선택할 수 있었고, 이러한 전통은 지방분권화 된 독일연방 이후에도 이어져 교회 조직이 중앙 집중이 아닌, 지역교회의 리더십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갔다. 그리고 산업혁명 시기에

교회가 사회복음에 매진하면서 복지기구들을 설립하였고,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아 그리스도교 사회주의라는 개념을 발전시켜 정치적 활동을 전개하는 등 다방면에 걸쳐 독일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노력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독일교회의 역사에 대한 이해는 독일 통일의 전후과정에서 독일교회의 역할을 깊이 이해하고 또한 그 과정에서 한계는 없었는지에 대한 단초를 제공해준다고 볼 수 있다.

히틀러가 1933년 집권하면서, 독일 개신교 교회연맹은 연방 소속의 제국교회로 재편되어 ‘독일개신교회(Deutsche Evangelische Kirche)’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나치 독일의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하였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교회를 제국의 발아래 굴복시켜 종교를 제국의 선전수단으로 만들겠다는 히틀러의 계획은 성공을 거두지 못한다. 독일개신교회의 출범 이후 개신교회에서는 352,000명이 교회를 탈퇴하며 제국의 압박에 저항해나갔다(발만, 2006: 318). 특히 1933년 마르틴 니뭘러 목사가 결성한 ‘긴급목사동맹’은 후에 ‘고백교회(Bekennende Kirche)’가 되었고, 1934년 루터파, 개혁파, 연합파 신학자들이 함께 모인 총회에서 신학 선언서를 발표하였다. 이 선언서는 교회와 나치즘의 결합은 성서의 가르침과 배치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이 선언서가 바로 그 유명한 바르멘 선언으로 독일을 대표했던 신학자인 칼 바르트도 이 선언에 참여한 이유로 본 대학의 교수직을 잃게 되었다. 칼 바르트처럼 고백교회에 참여했던 많은 목회자들이 투옥되었고, 고백교회는 지하교회가 되었다(발만, 2006: 320). 특히 본회퍼는 고백교회 출신 목회사이자 신학자로 나치에 대항한 정치운동을 전개하다가 투옥되었고 결국 1945년 처형되었다.

전후 독일의 사정만큼이나 독일 개신교 교회의 사정은 너무나 처참했다. 독일 지역의 종교분포를 보았을 때 개신교 교회는 주로 동쪽 지역에 분포하고 있었는데, 이 지역의 많은 부분이 승전국에 의해서 분할되었다. 게다가 인구의 90%에 달했던 동독의 개신교 교인들은 소련으로부터 들어온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결합한 전체주의적 경향으로 인해서 교회가 과거의 위상을 상실하고 예배를 드리는 장소로만 사용되었다. 2차 대전 이후에 설립된 ‘독일 개신교 교회협의회(EKD, Evangelische Kirche in Deutschland)’는 중앙집권적 기구가 아니었기에 지역교회를 통한 재건과 선교활동이 이어지게 되었고,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과거의 민족, 국가, 교회의 동일체에서 벗어나 비판적 연대체로서의 교회를 추구했다. 즉, 독일 개신교 교회협의회는 하나의 교단이 아니라 “연합회”의 성격이 강한 기구로 주 교회들이 독립적인 지위를 행사하고 행정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등 정치에 있어서 연방제처럼 구성된 교회 연합기구이다. 독일 개신교 교회 협의회에는 크게 세 교파가 속해있는데, 첫 번째는 연합파 교회로 과거 루터파 교회와 칼빈파 교회가 연합한 교회를 지칭하는 교파이다. 두 번째는, 루터파 교회이고 세 번째는 개혁파 교회이다. 이 두 교파는 과거 연합운동을 거부하고 루터교회의 전통을 유지하고 하는 교회이며, 개혁파 교회는 역사적으로 칼빈의 전통을 따르는 교회이다. 그리고 이름에서 의미하는 바 독일 교회가 과거의 독일이라는 국가와 민족을 위한 교회가 아닌 독일에 거주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로서 자리매김하겠다는 의지였다(정일웅, 2015: 81). 이를 대내외에 공표한 결정적 사건이 “슈투트가르트 죄책고백”이었다. 이 고백은 바로 나치 민족주의와 전체주의에 협력한 교회의 죄를 인정하고 그에 따른 책임의식을 표명한 교회의 공식적 문서였다. 이 문서의 시작은 죄책의 연대성에 대한 강조와 전쟁으로 고통받은 수많은 민족과 나라들에 대한 사과로 시작한다. 그리고 교회가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했음에 대한 성찰과 더불어 세계교회협의회와의 연대를 통해 새로운 독일 교회의 시작을 다짐하고 있다(장수한, 2013: 115-116). 이 선언은 독일 개신교회 내에 수많은 논쟁들을 불러일으켰는데, 한 편에서는 나치즘의 악행과 교회의 연대책임을 강조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주장들이 있었고, 다른 한 편에서는 독일 정부와 사회가 유대인 학살과 같은 전쟁범죄에 대한 심각한 죄의식을 가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와 보상을 적극적으로 한 반면 교회의 죄책고백이 독일의 의식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었다(정일웅, 2013:119-120). 죄책고백과 더불어 세계교회협의회와의 연대를 천명하며 탄생한 독일개신교 교회 협의회는 정치적인 논쟁을 지양하면서 지역교회 중심으로 재건활동을 전개했다.

동서독의 분단의 과정에서도 독일교회는 하나의 연합체로서 독일사회 내에서 다양한 운동을 전개해나갔다.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독일 개신교 교회의 날” 행사로, 이 행사는 대규모의 평신도 운동으로서 발표와 토론을 통해 개인의 영성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한 교회의 책임을 인식하고 연대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1954년 라이프치히 행사에서는 65만 명이 참가하였지만 이후 점점 그 숫자가 줄어들게 되었고 베를린 장벽이 세워진 이후에는 전체 독일 교회의 모임이 성사되지 못했다(발만, 2006: 336-337) 사회복음 확산의 통로로서 독일개신교회의 날이 기능하였고, 이를 통해 독일교회는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자 했다. 특히 사유재산, 노동, 여성, 토지, 인권 등의 민감한 정치적 문제들에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하였고, 사회복지사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리고 1969년 동독 지역의 교회들이 분리되어 나가면서 독일 개신교 교회 협의회는 다시 연합과 일치를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동을 전개해나갔다.

II. 독일 통일에 있어서 독일교회의 역할

1945년 독일개신교 교회 협의회를 설립한 독일교회는 패전으로 독일이 동서독으로 분리된 와중에도 하나의 교회를 지향하며 수많은 정치적 논쟁과 신학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20년 이상 교회의 통합을 유지하였다. 이러한 통일된 교회 조직을 유지하고자 했던 노력의 이면에는 비록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인 이유로 독일이 분열이 되었다 하더라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인 평화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된 교회로 남아 통일을 이뤄야한다는 사명의식 때문이었다.

하지만 1961년 베를린 장벽이 세워지게 되고 독일 개신교 교회 협의회와 동독 정부와의 관계가 악화 되었는데, 특히 동독 정부는 군인 등을 비롯한 공무원들에게 교회 멤버십을 포기하고 독일 사회주의 통일당에 입당할 것을 강요하고, 교회 건물의 건축을 불허하고 청소년들에 대한 종교교육에 간섭하였다. 통계에 따르면 당시 동독의 청소년 중의 90%가 교회의 견신례 대신에 사회주의 헌신식에 참여할 정도로 국가가 교회의 여러 활동에 관여하였다(이범성, 2005: 104). 이렇게 되면서 더 이상 자유롭게 동서독의 교회들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동서독 교회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교회의 일치된 모습을 유지하며 독일 통일의 불씨를 교회 연합과 일치로 통해서 이어나가고자 했다. 동독과 서독의 교회들은 같은 성서, 찬송, 성서해석을 공유했고 기독교적인 신앙 활동에 있어서도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이범성, 2005: 110). 하지만 동독 정부의 계속된 억압과 독일 개신교 교회 협의회와 서독정부 사이의 군목협정에 관한 동서독 교회의 갈등이 누적되면서 1969년 동독 지역의 교회들이 동독 개신교 교회연맹이라는 교회연합 기구를 독자적으로 구성하게 된다. 동독 개신교 교회 연맹의 독일어 공식명칭은 Bund der Evangelischen Kirchen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약자는 BEK)로서 독일 민주공화국이라는 동독의 국가명칭을 넣음으로서 동독 지역의 교회공동체들을 대표하여 정부와 독일 개신교 교회 협의회와의 특수한 동반자 관계를 추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동독정부의 압력과 군목협정이라는 이유로 동독개신교회연맹이 탄생하게 되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연맹이 동독의 개신교회 공동체를 대표하는 기구로 정부와의 특수한 관계를 설정함으로써 보다 용이하게 서독의 교회와의 교류할 수 있었던 동시에 동독 내에서도 독자적으로 교회활동을 유지할 수 있었다(발만, 2006: 352).

1. 사회주의와 공존하며 시민사회 역할을 감당한 동독교회

동독 개신교 교회 연맹(BEK)이 독립하여 활동하면서 동독의 개신교회들은 정부와의 특수한 관계 속에서 유일한 시민사회로서의 소통의 창구가 되었다. 이들은 본인들의 정체성을 ‘사회주의 사회에서 교회의 증언과 봉사공동체’라고 정의하고 동독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완전한 순응도, 완전한 거부도 아닌 제 3의 길’을 추구할 것임을 명시했다(발만, 2006: 354-355). 이러한 BEK의 입장은 사회주의 이념 체제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이 체제 안에서 복음적 목표를 지향하며 동독 국민들을 위한 봉사의 기관이 되겠다는 점을 드러내주고 있다. 결국 이는 교회가 국가의 “정치적, 사회적 문제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를(정일웅, 2015: 113) 보여주며 국가에 대한 비판적 협력자가 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1970년대를 BEK가 독일 개신교 교회 협의회, 세계교회, 그리고 동독 정부와의 관계의 설정과 본인들의 정체성에 대한 성찰의 시기로 보았다면 1980년대는 본격적으로 세계적 이슈와 정치적 이슈들에 목

소리를 내기 시작한 시기로 볼 수 있다. 즉 이 시기부터 BEK는 서독교회와 함께 반전평화운동과 환경운동을 전개하면서 친소 사회주의 국가 내부에서도 반냉전 운동을 전개하며 큰 주목을 받게 된다. 이 두 교회 연합이 반전운동을 전개하게 된 계기는 1978년 군사학이란 과목을 교과목으로 인준하고 병역의 의무가 있는 청년들이 무조건적으로 군 복무를 해야 한다는 국가의 정책이 시행되면서이다. 이 때부터 동독교회는 서독교회와 함께 평화운동을 전개할 것을 결의하였고, 1980년 11월부터 매년 10일간의 교회 평화주간을 통해 무기 없는 평화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하였다(발만, 2006: 357). 이 외에도 동독교회는 소련을 비롯한 냉전의 당사자들의 군사행위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청년들을 중심으로 전개했고, 청년들은 평화를 지지하는 의사를 ‘칼을 쟁기의 보습으로 만들자’라는 표장으로 만들어 부착하고 다녔다. 이는 당시의 여타 사회주의 국가에서 볼 수 없었던 교회의 국가의 군비 증가에 대한 저항이었다. 결국 정부의 항의로 이 캠페인은 1982년 가을에 끝이 났지만, 동독 교회는 계속해서 양심(종교)에 의한 대체복무를 제도화(정일웅, 2015: 120-121)¹⁾하는 데 크게 공헌하기도 했다.

동독 교회의 평화운동은 1983년 밴쿠버에서 있었던 세계교회협의회 총회를 시작으로 한 세계 교회의 평화 운동의 중심에 서게 만들었다. 밴쿠버 총회는 ‘정의, 평화, 창조세계의 보존’이라는 표어로 교회의 연합된 목소리와 활동을 요청했고, 이 총회의 연장선상에서 동독교회가 1988년 JPIC(Justice, Peace, Integrity of Creation) 총회를 유치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를 동독교회가 수용하였고 1989년 드레스덴에서 이 대회가 열리게 되었고, 이 대회를 통해 동독 국민들과 정권에 대하여 평화와 정의, 환경문제에 대한 압박과 함께 성찰의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이렇듯 넓은 의미의 동독교회의 평화운동은 후에 정의와 평화, 그리고 창조질서의 보존이란 이슈의 중심 지역으로 동독이 세계교회와 시민들의 주목을 받게 되어 결국 동독의 정치와 사회 상황의 변화와 더불어 “독일 통일에 전주적인 역할(정일웅, 2015: 124)을 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2. 분단 시기 통일을 위한 서독교회의 역할

동독 지역의 개신교회가 새로운 연합기구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독교회 중심의 독일개신교 교회 협의회는(EKD)과 동독 개신교 교회 연맹(BEK)는 하나의 특수한 공동체로서의 서로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치된 그리스도의 교회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는 정치적으로는 동서독이 갈등하고 동서방의 냉전의 엄혹한 현실 속에서도 교회는 이에 휩쓸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하나된 교회로서 평화와 통일의 사명을 다하겠다는 양 교회연합의 강한 의지의 표현이었다.

1) 후에 대체복무라는 말 자체가 청년들이 군사 행위에 협력한다는 의미가 포함된다는 비판을 받아들여, ‘사회를 위한 평화봉사’라는 말로 대체되었다.

동독 교회는 1952년까지 교회 운영과 목회자에 대한 사례를 교인들이 내는 교회세에 의지했었다. 하지만 동독정부는 교회세를 징수하는 것을 거부했고, 달리 재정을 충당할 길이 없었던 동독의 교회는 교회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에 대해 서독의 교회는 부족한 재정을 보조하면서 동독의 교회들이 유지되어 계속해서 독일 사회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통일을 위해 연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동독교회에 대한 서독교회의 현물지원은 사회봉사국에 의해 이뤄졌으며, 물품의 종류 또한 식료품과 옷 등 매우 다양했다. 현금의 경우에도 동독교회 재정의 40%를 서독교회의 지원에 의존했음을 볼 수 있다(이범성, 2005: 110).

김영동은 서독교회의 동독교회 지원을 A형과 B형으로 나누어, A형이 원자재 등의 공급을 통한 재정 지원이라면 B형은 인도적 목적으로 동독지역의 정치범들을 대가를 지불하고 서독지역으로 거주시키는 지원방법이었다고 정리하였다. A형의 지원방법을 통해서 동독교회는 교회 운영에 필요한 재정 이외에도 차량, 산업용품, 휘발유 등의 물품 등을 우회하여 받았고, 동독교회 목회자들의 급료 및 연금도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심지어 전쟁기간 동안 파괴되어버린 동독지역의 교회들의 재건축 비용 또한 서독교회가 감당하였다. 통일까지 서독교회가 동독교회에 지원해준 현물지원 액수는 40억 2천만 마르크에 달해 동독교회 예산 전체에 20-25%에 달할 정도였다(김영동, 2016: 60-62).

B형은 일종의 서독교회와 동독 정부와의 비공식적 프로젝트였다. 처음에는 서독교회가 동독에서 구금되었던 목사들을 석방하기 위해서 시작되었지만, 이후 서독정부의 요청으로 동독 주민을 위한 인도적 사업으로 확장되었다. 서독교회는 동독정부와의 비공식적 합의를 통해서 동독에 구금되어있는 정치범의 석방을 위해 현금 및 물자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이러한 지원은 서독 정부에서 한국의 통일부와 같은 역할을 감당했던 '전독일에 관한 문제 담당 부처' 혹은 '내독관계성(Bundesministerium fur gesamtdeutsche Fragen)'에서 인도적 사업으로 이뤄졌으며, 독일 통일 때까지 서독교회는 34억 마르크 상당의 현금과 물건을 정치범의 석방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추산된다(김영동, 2016: 67). 인원으로는 총 34,000명의 구속자를 석방시켰으며 25만명이 서독으로 이주하여 가족과 상봉할 수 있었다(이봉기, 2001: 289). 이러한 서독교회의 동독교회를 위한 현물지원은 많은 논쟁을 일으키기도 했다. 여러 지원 등을 통해 동독 사회주의 정권의 연장에 도움을 주진 않았는지, 혹은 인도주의적 사업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구출 하는 일에 재정과 현물을 사용함으로써 동독정부로 하여금 동독 주민들을 인질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는 점 등의 문제제기의 가능성이 있었다. 또한 서독교회의 동독에 대한 현물 지원이 동독이 서독에 대한 경제적 의존을 높이게 만들었고, 통일 이후에도 양국 국민들의 상호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의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독대사관이 발행한 문서에 따르면 이러한 서독교회의 동독교회 지원은 독일 통일에 기여한 바가 크을 볼 수 있다. 이 문서에 의하면, 서독교회의 지원이 “동독 국민경제에 도움을

주었고, 기독교적 유대관계가 향상되고, 정치적, 법률적 장애도 극복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회기관을 통해서 동족의 고통을 완화시켜 줬고, 동독교회가 계속적으로 복음전파를 통해 동독인들의 삶에 중요한 원리를 제공함으로써 유물론적 사회주의를 향한 저항의 토양을 형성케 하였다”고 평가된다(Armin Volze, 1991; 김영동, 2016: 71에서 재인용). 즉, 무신론이 기반인 사회주의 국가인 동독에서 동독교회가 생존하여 평화운동을 전개하고 유일한 시민사회의 주체로 남게 되는데 서독교회의 지원이 절대적이었던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발만은 동독교회가 시민사회의 주체로서의 활약상들을 다음과 같이 역사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즉 동독교회는 동독 내의 시민운동가들의 보호소가 되었고, 군중들이 평화적인 시위를 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고 지원해줬다. 또한 라이프치히의 니콜라이 교회에서 시작된 평화 기도회는 이후 많은 군중시위의 동기가 되어주었다. 이렇듯 동독교회는 놀라운 자제심과 사회참여로 독일 통일에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있다(발만, 2006: 361).

3. 통일 후 일치를 위한 동서독 교회의 역할

1989년 11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동서독의 시민들이 장벽을 넘어 자유롭게 왕래하기 시작했고, 이제 바로 통일이 될 것이라는 희망으로 독일 시민은 흥분의 도가니에 빠졌다. 동독 시민들은 이제 서독과 같은 발전된 통일 국가 안에서 살 수 있다는 희망으로 1990년 인민선거에서 독일연합과 정당이 압도적인 표 차이로 승리를 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독일연합과 정당은 동서독 사이의 국가간 협정을 통해 통일 독일을 향해 재걸음을 걷게 되었고, 1990년 7월 1:1로 화폐통합이 동서독 사이에 이뤄졌다. 그리고 1990년 10월 3일에 공식적인 정치적 통일을 이루게 된다. 결과적으로 동독의 주들이 서독에 편입되는 통일로 귀결된 것이었다.

1969년 EKD와 BEK로 갈라졌던 동독교회와 서독교회는 다시 통합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즉, 정치적인 통일의 방식과 마찬가지로 분리되어나갔던 BEK가 EKD로 편입 되는 방식을 채택하기로 한다. 즉, BEK 소속 교회들이 EKD의 회원자격을 회복하는 방식으로 통합을 논의기로 한다. 1990년 로콴에서 있었던 동서독교회의 대표들의 비공개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합의문을 만들어 발표하였다.

독일 전체 개신교회 교인들은 특수한 공동체로 분단되고 교회가 조직상 분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생생하게 존재했다. 장차 정치적인 발전이 되는 것과 병행해서 우리는 전체 개신교인들의 공동체성을 하나의 교회 안에 조직적이고 적절한 형태를 부여하고자 한다. 국토 분단 동안 있었던 경험과 차이점을 우리는 주의 깊게 다루고자 한다.²⁾

2) 1990년 1월 17일 로콴 공동선언문, 요하네스 발만, 361에서 재인용.

이 선언 이후에 독일교회의 통합의 과정에서는 요하네스 발만의 견해처럼 많은 논쟁들이 존재했다. 즉 서독교회와 기존의 연합기구로 통합되는 것보다 새로운 교회를 건설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의 문제, 구 동독 개신교회의 정체성과 경험들을 계속해서 지켜 나가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등의 문제들이 제기되었다(발만, 2006: 362). 수많은 논쟁에도 불구하고 동독개신교회협회는 분단 이전의 독일 개신교 교회 협의회로의 복귀를 결정하게 되면서 두 교회연합이 통합되었다. 물론 동독교회의 일부 인사들은 서독교회와의 통합을 유예하면서 독자생존의 길을 찾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동독 교회가 독자적으로 생존하기에 동독 교회들이 너무나 열악한 상황에 있었다. 결국 두 교회연합은 과거의 EKD로 1991년 6월27일 공식적으로 통합되었다.

교회법적으로 완전한 통합을 이뤘다 하더라도 두 교회 연합회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몇 가지 남아 있었다. 특히 교회세의 문제, 군복제도의 문제 등이 두 교회연합간의 통합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었다. 우선 앞에서 서술한 바 동독교회는 동독의 법에 의해 교회세의 징수가 금지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서독교회와는 달리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교회운영 재정의 많은 부분을 서독교회에 의존하게 되었다. 통일 이후 동독의 교회는 서독교회와 마찬가지로 교인들에게 징수되는 교회세에 의존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교회 재정을 운영할 수 있었지만, 문제는 동독의 경제 상황에 비례해서 교인들이 교회세를 부담하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점이다(정일웅, 2015: 161). 즉 통일 이후에도 동독의 경제상황은 생각만큼 나아지지 않았고, 동독 지역의 실업률은 서독보다 높아 많은 수의 교인들이 교회세를 감당치 못하고 교회를 이탈하는 악순환이 시작되었다.

또한 군복제도는 동독 교회가 동독 정부에 저항했던 이슈 중의 하나였다. 즉, 동독 정부가 청소년들의 군복무를 의무화하는 와중에 동독의 교회는 평화 이슈를 기치로 내세워 청소년들이 대체로 복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도록 요청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로 “사회를 위한 평화봉사”의 제도를 만들어 군복무를 대체하도록 할 정도로 평화이슈에 민감하게 대항해 나갔다. 이러한 동독의 상황에서 군복제도의 정착은 동독교회가 동의할 수 없는 것이었고, 동독교회가 BEK를 만들어 EKD에서 이탈하는 간접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 통일 이후에도 군복제도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BEK가 EDK에 통합되는 와중에서도 군복 문제는 별도로 취급할 정도로 동독교회의 입장이 관철되기에 이른다.

III. 21세기 독일교회의 과제와 역할

1. 동서독 교회의 일치운동과 한계

동서독교회가 하나의 교회연합인 EKD로 통합되었지만 모두가 기대했던 봄날은 오지 않았다. 정확히 말하면 통합이라는 시대적 과제는 해결되었지만 통일 이전부터 동서독 교회가 당면하게 되었던 세속화의 거센 파도에 부딪치게 되었다. BEK의 경우 세속주의와 사회주의의 도전에서 큰 상처를 안게 되었다. 분단 이전에는 동독 지역의 개신교인들의 숫자가 서독 지역을 압도했지만, 사회주의 정권을 거치면서 개신교인의 비율은 25%로 현저하게 감소하였고, 서독지역에서도 세속화의 여파로 교회를 이탈하는 인원이 급증하게 되었다. 특히 도시보다 시골지역의 교세가 급격하게 감소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 예로 과거 프러시아 지역의 가장 큰 개신교회인 포메르쉐 지역교회(Pommersche Evangelische Kirche)의 경우 교인 수가 1950년 55만명에서 2002년 11만명으로 감소하였다. 신입 세례자와 입교자의 숫자도 10000명이 넘는 인원에서 1000명 아래로 감소했다. 이는 지역인구가 205만 명에서 174만 명으로 감소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교세의 감소가 매우 두드러짐을 볼 수 있다(Dietrich Werner, 2007: 298-299). 심지어 통일 이후에 독일지역의 천주교인 숫자가 개신교인의 숫자를 앞서는 현상이 독일 개신교 교회 협의회가 세워진 이후 최초로 벌어지기도 했다(발만, 2006: 330). 교세의 감소는 목회자의 숫자의 감소로 이어졌고, 포메르쉐 지역교회의 경우엔 한 목회자가 8개의 교회건물을 관리하는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이 있음을 볼 수 있다(Werner, 2007: 299). 주도홍 교수가 정리한 하이노 팔케(H. Falcke)가 지적한 통일독일 교회의 문제점은 “교세의 감소, 재정위기, 역할의 위기, 습관적 무신론, 동독시절의 비교회와, 종교다원주의의 침투, 다원화된 사회로의 진입, 정치적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교회”이다(주도홍, 2005: 73). 과거의 디아코니아의 신앙에 입각하여 정치 사회적 참여를 통한 사회변화를 추구하며 통일의 전주를 놓았던 독일교회가 통일 이후의 새로운 역할의 모색에 있어서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사회, 정치 참여의 과제

독일 통일 이후 교회는 양 국가 주민들의 사회 문화적 갈등을 해결하고 국가를 통합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한다. 이들은 독일개신교회협의회 공식 문건으로 “연대와 정의 안에서의 미래를 위하여”를 채택한다. 이 문서를 만들고 이제 교회가 독일 사회의 갈등의 문제에 대해 예민함을 가지고 부조리의 해결과 정의의 실현을 통한 사회통합의 길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다. 교회는 이 문제를 가지고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소통하면서 통일된 독일 사회를 위한 교회의 역할을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2년여에

걸친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2,500여 건이 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독일 사회의 “연대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찾아나가기 시작했다.

특히 동서독 주민들의 보이지 않는 차별과 갈등, 그리고 반목에 대해 교회는 상호교류의 사업을 통해서 서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통합을 이끌 수 있도록 헌신할 것이라고 다짐하였다. 특히 교회의 사업방향이 독일에 있어서 소외받고 차별받는 사람들을 위한 정의 실현으로 잡고 월요시위를 부활시키는 등, 보다 적극적인 사회 정치 참여를 지향하였다. 특히 동독 지역에서의 교회의 역할을 중요하게 부각시켰다. 동독지역 기업의 통폐합과 실업율의 증가 등의 부작용들이 동독 사회에서 사람들의 교회의 탈퇴와 갈등으로 이어지면서 이러한 사회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로 받아들여졌다.

3. 독일사회에서의 새로운 선교의 필요성

앞에서 서술한 바 독일교회를 지칭하는 데 있어서 복음주의교회가 아니라 일반적인 개신교회로 번역하는 연구들이 많음을 볼 수 있다. 그 이면에는 복음주의가 영미권에서 들어온 용어로서 19-20세기의 개신교회 내의 보수적 신앙양태를 의미하는 데 반하여 독일교회를 지칭하는 데 있어 복음주의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개신교회 전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하려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종교개혁 시기에 종교개혁 교회들은 카톨릭에 대항하는 개념으로 복음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일명 복음주의와 개신교회가 구별 없이 사용된 역사적 용례를 존중하는 의미이기도 하다.

독일교회의 특징은 앞에서 서술한 바 철저히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온 지역교회 연합의 위주로 운영되어 있는 일명 공법상의 주(州)교회라고 분류되어진다. 즉 한국에서의 교단의 의미는 신학적, 역사적으로 형성되어온 교파를 의미하지만 독일은 그 역할을 주 교회가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독일 개신교인들은 주교회가 본인의 교단이고, 지교회는 교회 공동체 혹은 공동체(Gemeinde)로 지칭하고 있다. 이러한 독일의 주교회는 독일의 공법에 의해서 그 권리를 보장받고 있으며, 특히 교회세를 징수하여 그 운영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공법상의 종교단체로 인정받는 개신교회는 “교육, 문화, 사회복지 등의 공공 사회분야에서”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는다(이상조, 2017: 166). 개신교회는 독자적으로 지방정부와 협력을 바탕으로 각 분야에서 교육, 복지, 문화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독점적 지위를 보장받으며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독일에서 역사적으로 이러한 공법적 지위를 보장받은 종교는 개신교와 카톨릭 밖에 없으며 다른 종교들은 사법 종교로서 자발적 헌신을 통해 운영되는 방식이다.

이러한 독일 교회의 제도는 기존 카톨릭 교회와 같은 교구가 중심을 이룬다. 즉 교인들은 본인의 거주지 내에 있는 개신교회 연합회 소속의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고, 이사를 할 경우에는 해당지역에 교

회에 이명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Evangelische Kirche in Deutschland, 2021). 그렇기에 한 교구가 다른 교구에 전도활동을 할 수 없으며 독일 개신교회 협의회의 정책결정을 통해 미약한 지역교회 연합회에 대한 재정과 인력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다. 또한 세속화로 인한 교인들의 감소와 그에 따른 교회세의 감소는 교역자들의 수급 부족과 기존 목회자들의 업무과중으로 이어져 본인들의 교구들도 돌보기가 버거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독일 교회의 교구적 구조와 인력의 부족 문제로 인해서 서독교회가 동독교회에 선교를 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구조적 한계가 있다.

독일 통일과 관련해서 동독 개신교 교회 연맹은 기존의 사회, 정치참여를 기반으로 한 시민사회의 역할을 감당했음을 주장했다.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동독교회는 독일 통일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평가되어지지만, 통독 이후에 동독 교회는 분단 시대보다 더 큰 위기를 맞게 된다. 첫 번째는 동독 주민들의 무종교성 현상을 들 수 있다. 분단 시대 동독교회는 하나의 시민사회로 국가와 공존했지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종교 교육에 대해서 종교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여지를 얻지 못했다. 이 외에도 동독 교회 지도자들의 정치권으로의 진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서독에 대한 반감이 교회에 대한 반감으로 연결 되는 등, 통독 이후의 동독 지역의 개신교회는 통일 이후에 새로운 위기를 맞게 되었다. 결국 사회주의 국가 체제 아래에서 국가의 종교탄압이나 무종교 교육, 그리고 교회에 대한 신뢰의 감소로 인해서 통일 이후 동독 주민들의 종교적 지형이 변화되어 급격한 개인주의와 비종교화 사회로 접어들게 된 것이다(오영훈, 2004: 410).

현재 독일의 교회 형태는 한 편으로는 로버트 벨라가 이야기한 공민종교의 형태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교회가 복음에 중심을 두기 보다는 공공의 가치를 지키고, 공공 기관으로서의 역할에 머무르는 것이 공민종교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벨라는 미국의 기독교를 이러한 고도로 발전된 공민종교라고 분석한다. 즉 성경적 용어들을 메타포로 사용하면서도 이에 기독교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김중서, 1995: 10). 예를 들어 선민의식, 약속의 땅, 희생, 부활등의 용어들이 미국 정치, 사회 상황에서 순수한 기독교적인 의미가 아니라 공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조지 워싱턴은 아브라함의 메타포로, 그리고 케네디의 죽음은 예수의 죽음의 메타포로 사용된다. 미국은 약속된 땅이고, 선민이라는 인식이 성서의 용어들을 미국의 공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공민종교의 모습을 보여준다. 물론 9/11 테러 이후 미국 개신교에 있어서 공민종교의 종말과 더불어, 남침례교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복음주의 신앙이 다시 부흥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공민종교의 특징은 신의 존재는 믿으나 교회 활동에는 참여하지 않는 신자들이 많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도 매주 공예배의 참석하는 인원이 실제로 본인을 기독교인이라고 정의하는 인구의 비율에 훨씬 못 미친다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독일의 교회도 교회활동에 참석하는 신자들의 비율이 현저히 떨어지며 급속한 세속화의 과정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독일교회의 위기에서 공민종교화된 중

교회의 특징을 볼 수 있다. 통일 이후 사회 전환기의 독일사회의 비종교적 경향은 19세기 경건주의에 기반한 내적선교의 전통이 에큐메니컬의 사회복음의 방향으로 치우치게 되면서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보다는 교회의 사회적 기능을 강조하는 독일 교회의 한 측면을 보여주는 듯 하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독일 교회의 디아코니아 신앙의 기본에는 과거 내적선교를 불리일으켰던 복음주의적 유산이 있음을 볼 수 있다. 산업화시기 디아코니아로 발전된 내적 선교(Innere Mission)을 주창했던 비헤른(Johann Heinrich Wichern)의 사례가 있다. 루터의 만인제사설과 진젠도르프의 경건주의적 전통을 기치로 하여 비헤른은 교회의 본질을 봉사를 통한 선교를 강조했다(최무열, 2015). 하지만 내적 선교의 근본은 개인과 공동체의 회심과 변화를 통해 이를 디아코니아로 발전하는 운동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내적 선교의 경건주의적 전통은 후의 영미권의 복음주의의 중요한 유산으로 인식되고 있다. 복음주의 또한 경건주의적 전통을 기반으로 성경, 그리스도, 십자가, 회심 중심 신앙을 기반으로 한 행동주의에 방점을 찍고 있다(David Bebbington, 1989: 2-3). 그리고 복음주의 신앙의 중심은 바로 복음전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나치즘의 출현과 교회의 저항, 분단과 통일을 위한 독일 교회의 역할이 중요하게 인식되면서 독일 교회 역시 내적 선교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독일사회의 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한 디아코니아 선교를 담당했다.

이러한 역사적 전통에도 불구하고 통일 독일 이후의 독일교회는 세속화의 도전과 다문화 사회로의 전이로 인해서 급격한 교세의 감소와 위기를 겪고 있다. 이와 같이 독일교회가 통일 이후에 겪는 문제는 앞으로 북한의 개방 이후의 북한 교회의 세우기의 패러다임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통일 후 독일 사회가 경제적인 차이로 인한 갈등으로 내적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현 상황에 불만을 가진 동독 지역에서는 새로운 극우적 활동들이 기승을 부리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아직까지 독일교회는 진정한 내적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주 교회 또한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공적 역할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요구되고 있다.

그렇다면 독일 통일과정에서 동서독교회가 새로운 봄이 아닌 새로운 위기의 시대를 맞은 것이 공적 교회의 책임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교회세를 비롯한 공적 지원에 기대어 비헤른이 추구했던 내적선교를 이루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즉, 외적인 디아코니아 선교와 더불어 독일 사람들이 복음을 통한 선교와 변화 그리고 통합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주도홍 교수는 최근의 “독일교회가 말씀의 부흥과 사랑의 실천을 외치는 교회로 나서게 되었음”을 평가하고 있다. 이제 독일 교회가 열린교회로 나아가며 독일교회의 “부흥을 외치며, 회개를 외치고, 각성을 위한 기도과 중생을 외침은 새로운 시대”를(주도홍 2005: 30-31) 지향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제는 동독 교회들이 스스로 교구의 목회 프로그램을 갱신하는 도전들을 하고 있으며, 과중화 되어 틈이 벌어지고 있는 교구 목회의 틈을 다른 전통의 개신교회들, 예를 들면 한인 이민교회들이 들어와 지역사회에서의 선교 사역을 감당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통합과정에서의 통일 교회의 한계를 성찰해 볼 때, 새로운 한반도의 통일에 있어서도 두 가지의 축인 복음주의에 기반한 선교운동과 사회적 전환기에서 소외되거나 고통 받는 일반 주민들을 위한 디아코니아 선교를 함께 추구하는 종합적 선교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필요할 것이다.

이 종합적 선교의 핵심은 복음전도와 사회에 대한 디아코니아 선교를 통합적으로 받아들여 상황에 맞춘 섬김의 선교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사회변화만을 추구하고 교회의 성장에 무심하다면 사회변화와 복지의 진보를 이룰 수 있는 교회의 동력이 상실될 위험이 있고, 반대로 교회 전도에만 치중하게 된다면 기독교와 비기독교의 이분법적 접근을 강요하고 사회 내에서의 신뢰를 잃게 되어 교회에 대한 반감만 불러일으킬 위험성이 다분하다고 볼 수 있다. 두 선교적 방법의 균형적인 통합이 필요하다는 것이 통독 이후의 독일 교회의 현실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개혁 개방 이후의 교회 선교의 방향을 세워 나가야 할 것이다.

IV. 통독 후 독일교회의 현상을 통해 살펴본 종합적 통일선교의 가능성

1. 과거 북한 교회 재건운동의 배경과 한계

한국에서의 북한선교운동은 한기총의 설립 이후 복음주의 교회들의 통일담론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 진보적 교회들은 한국교회협의회와 세계교회협의회(W.C.C)를 중심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희년의 선포를 하나님의 정의의 실현으로 바라보고 민주화운동과 연관지어 정치적인 담론으로까지 통일론을 발전시켜 나갔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복음주의 교회들은 한반도의 복음화를 통한 통일을 지향하며 북한선교론을 펼치기 시작한다. 특히 한기총의 설립되면서 복음주의권 교회들은 북한에 대한 안보의식을 공유하여 남북 분단 상황에서 남한의 체제를 안전하게 지키며 북한 붕괴 후 북한을 흡수하는 형식의 통일론을 확산시켜나가기 시작하였다. 한기총의 이러한 북한인식은 1988년 서울 올림픽 개최를 기점으로 북한에 대한 이념 전쟁에서의 우위를 점했다는 자신감과 더불어 노태우 정권의 북방외교 정책을 통한 동구권 국가들과의 교류의 확산에 기인한 바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1994년 김일성의 사망과 일명 북한의 고난의 행군으로 인해 북한 붕괴론이 남한 사회에 급속히 확산되며 한기총은 북한 선교의 한 방법으로 북한 교회 재건운동을 펼치기 시작한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한기총은 남북교회 협력위원회 안에 북한 교회 재건 위원회를 결성하고 북한 교회의 재건을 한국교회의 시급한 과제로 규정했다. 그리고 1997년에는 과거 북한 지역에 존재했던 교회들을 세우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

하며 한국교회가 연합의 원칙, 단일교단의 원칙, 독립의 원칙을 준수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김현웅, 2002: 102).

하지만 북한 교회 재건 운동은 이후 동북아 정세의 변화와 남북 정부 간의 화해, 협력 무드의 강화, 그리고 남한사회 내에 통일회의론의 확산과 더불어 그 추진동력이 급속히 약화되었다. 김일성 사후에 고난의 행군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겪고도 북한 체제는 더욱 더 공고하게 유지되었고, 노태우 정권부터 남한 정부의 통일원칙이 인위적 통일이 아닌 평화 정착 후의 단계적 통일론이 통일원칙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서 북한 정권의 붕괴 후 흡수통일이라는 기대 심리가 약화 되었다. 그리고 2012년 김정은이 북한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어 북한의 경제 개혁과 핵개발이 고도화되면서 북한 체제의 붕괴에 대한 희망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남한에서도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약화되며 한반도의 통일 보다는 평화적 공존에 국가정책과 시민운동의 방향이 설정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북한 체제의 붕괴와 흡수 통일, 그리고 북한 지역에 교회의 재건이라는 패러다임이 선교적 관점에서 그 영역이 확장되기에 이른다. 즉, 탈북민 지원 및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제자훈련, 북한주민들을 위한 인권운동, NGO 등을 통한 북한주민 돕기 운동 등을 진행하며 북한 주민에 대한 접촉면을 확장하고 있어왔다. 하지만 북미 정상 간 하노이 회담의 결렬,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남북교류 중단 등의 대내외적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해 과거 개념의 북한선교 활동이 정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선교적 접근으로 북한선교의 방향성을 재설정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 종합적 통일선교의 제언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북한에 대한 종합적 선교의 방향은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가? 본 논문은 과거 통전적 선교가 가지고 있는 우선성의 한계를 먼저 극복하는 대안으로서의 종합적 선교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최근 박현신은 이를 팀 켈러의 선교적 교회론을 기반한 센터처치의 적용을 제시한 바 있다. 그는 북한 도시의 문화적 상황을 분석하여 효과적이고 “총체적인 복음사역 전략”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박현신, 2021: 38). 비슷한 맥락에서 통전적 선교에 대해서 현대의 복음주의의 대표적 인사인 존 스토틀(John R. W. Stott)가 강조한 그리스도 개인 자체가 “증인인 동시에 중”이라는 표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디아코니아 (diakonia, 섬김)’과 ‘마르튀리아 (marturia, 증거)’는 불가분의 사역이며, 복음전도사역과 사회적 책임 모두를 담당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정의하였다(존 스토틀, 2005: 49-50). 홍기영은 통전적 선교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추구에 있다고 규정하고 하나님 나라에 예수의 사역의 중심이라고 분석한다(홍기영, 2014: 424). 즉,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로 선포하고, 병자를 고치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고, 억압받는 자들을 자유케 하는 공의를 이루는 자로 부름받았다고

본인의 정체성을 정의했다. 그리고 그의 사역 자체가 바로 통전적 선교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다. 예수의 사도들이 함께 했던 초대 교회 공동체는 선교하는 공동체였고,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전하는 전달자,” “하나님의 대사” 그리고 본인들이 살고 있던 “지역사회와 문화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변혁자”가 되었고, 이를 현대 사회의 선교의 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홍기영, 2014: 428). 특히 동독과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전체국가 사회에서 복음의 선포가 중요한 것은 그들의 유물론적 세계관의 변화를 추구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이다. 동독의 경우 유물론적 세계관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과거보다 나아지지 않은 경제, 문화적 상황은 극우 민족주의 세력의 등장으로 이어졌다. 이제 교회의 역할이 디아코니아를 통한 사회복음의 진정한 원칙인 복음 선포의 사역을 회복하여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확산하고 이를 통해 다시 사회 안에서의 디아코니아 사역을 강화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 선교는 교회 건물이나 예배 공동체의 세움과 더불어 이를 통해 지역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선교적 공동체, 교회의 세움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한 편에서는 복음전도가 우선이나, 사회봉사가 우선이나, 즉 증인으로서 북한 사회에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이 우선이나, 아니면 사회, 복지 기관을 통한 디아코니아가 우선이나는 이분법적 논리로 북한선교의 방향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통독 후 독일교회의 공교회로서의 자리매김에 주목하면서 굳이 교회 건물을 세우고 교인들이 공예배에 출석하는 것보다 공적 시민으로서 삶의 자리에서 시민제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선교의 목적이라고 주장하는 일부 신학자들이 목소리가 존재한다. 하지만 구 동독 지역의 경우에는 신앙인이자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의 정체성을 거부하며 교회를 배척하는 상황에서 교회의 공적 역할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 즉, 디아코니아 선교와 더불어 복음의 확산을 통한 교회 공동체의 세움과 성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존 스토트가 지적한대로 섬김과 증거는 동전의 양면처럼 떨어뜨릴 수 없는 선교적 사명이자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통전적 선교의 한계는 이분법적 논리로 우선성을 강조하다 보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며 다른 한 편을 등한시하거나 부수적인 사역으로 여길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기본 전제에 있다. 그럼으로써 교회가 선교활동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인력과 재정의 분산으로 인해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칠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안승오, 2019). 통전적 선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존재 이유인 복음의 전파와 회심이 우선이며 복음의 발로로서의 디아코니아 사역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이분법적 접근을 지양하고 통합적 사역을 추구하는 선교는 복음의 선포-섬김을 통한 사회의 변혁을 이끌 수 있는 선교가 되어야 하며, 사회주의 체제 아래에서 비종교화의 거센 사회 분위기 속에서 교회의 교회다움을 회복하고자 노력하는 동독의 교회들이 추구하는 사역의 방향이다. 예를 들어 동독 출신이면서 뮌헨 대학의 조직신학 명예 교수인 볼프 크뢰케(Wolf Krotke)

는 독일교회가 스스로 자립하여 교인들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선포하는 자라는 정체성과 영성을 회복해야 미래의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한다. 그는 독일 교회의 역할에 대하여 “교회는 복음의 진리를 명확하게 증거하고, 이를 사회 안에서 실천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Wolf Krotke, 2012: 446).

이러한 북한 교회 세우기를 위한 종합적 선교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해보고자 한다. 첫째, 북한 교회 세우기를 위한 사역자들의 양성에 있어서의 교회의 역할이다. 북한선교는 NGO, 교육기관, 복지기관 등을 통한 여러 방식으로 디아코니아 신앙에 근거하여 이뤄질 것이다. 이러한 디아코니아 사역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인원들이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섬기는 종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때에만 오해, 배척, 갈등이 예상되는 사역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긴밀한 복음선포와 나눔이 가능한 소규모의 신앙공동체의 양성이다. 이는 복음전파야말로 선교의 핵심으로 이를 통해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삶의 방식을 전환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공적인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원천이 되어준다. 또한 전략적으로도 앞으로의 북한지역에서의 복음전도와 디아코니아 선교의 주체는 남한 교회가 아닌 탈북민과 북한에서 양육된 현지 기독교인들이 되어야 한다. 특히 전환기에 있어서 현지인들에게 리더십이 있는지 없는지가 선교의 역량과 지속성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음을 평양 대부흥 운동 이후의 한국교회의 선교 지형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네비우스 선교정책으로 현지인들의 리더십을 존중하고 이를 통해 지역교회들을 탄탄하게 양육했던 장로교회와 기관과 문서를 통한 사역을 확대하고 현지인들의 리더십을 세우지 못한 감리교회가 1910년 이후 10년간의 침체기 동안 보여주었던 교세의 차이가 확연하다. 이는 선교에 있어서 현지의 리더십을 세우고 복음전도를 위한 확실한 기반을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Hoon Song, 2009). 셋째로, NGO와 같은 기관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디아코니아 선교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 넷째로, 교회 자체가 시민적 참여와 경험을 할 수 있는 장이 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교회가 사회와 문화의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기지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양육된 인원들이 다시 사회, 복지 기관으로 선순환되어 교회의 선한 영향력을 사회 안에서 확장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상태에서 조선그리스도교연맹과의 관계를 재고하고, 독일통일과정에서의 동독교회의 역할을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이 일정부분 담당할 수 있을지를 긍정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즉, 동독교회가 사회주의 속의 교회로서 하나의 시민사회로 인정받고 이를 토대로 서독교회, 서독정부의 소통의 통로가 되었음을 고찰하고 이를 한반도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연구해야 한다.

결론

독일의 통일에 있어서 동서독교회의 역할이 지대했음은 독일 정부뿐만 아니라 여러 학자들이 동의하는 바이다. 독일 교회는 전통적으로 디아코니아 선교를 지향하는 지역교회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왔고, 분단의 상황에서도 각자의 영역에서 지역사회와 국가가 당면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독일교회의 이러한 저력의 이면에는 독일 국민의 과반수가 개신교회 등록교인이었고, 공법적 교회로서의 공적인 지위가 보장되었음을 볼 수 있다. 독일의 통일에 큰 공헌을 했던 교회는 통일 이후의 장밋빛 미래를 꿈꾸었겠지만, 통독 이후의 독일의 현실은 특히나 교회에 가혹했다. 신입 교인들보다 교회를 탈퇴한 인원이 3-4배에 이를 정도로 교인들의 교회 이탈이 가속화되어 독일을 더 이상 개신교 국가로 부를 수 없을 정도이다.

교인들의 이탈과 더불어 동서독의 교인들의 비종교화 현상이 뚜렷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동독 지역의 교회에 대한 신뢰상실과 구 동서독 주민들의 갈등은 교회가 해결해야 할 새로운 과제로 부상하였다. 이러한 독일의 사례에서 고찰해 볼 수 있는 것은, 교회의 사역에 있어서 독일식의 디아코니아 중심의 사역과 더불어 복음주의적 선교 사역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선교학적 관점에서 이러한 선교정책과 원리는 앞으로 북한 개방 시에 이뤄질 북한 교회 세우기의 한 패러다임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즉, 한 축으로는 복음전도를 통한 제자양성을 우선하며, 그리고 그 기반을 바탕으로 다른 한 축으로는 사회, 복지, 교육 시설을 통한 디아코니아 사역을 추진해야 한다. 더 나아가자면, 교회 공동체와 기관 사역을 남한교회가 아니라 북한에 세워진 신앙공동체가 주도적으로 맡아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할 것이다.

북한 교회 세우기는 북한의 열악한 삶의 질을 향상하는 실질적인 디아코니아 선교와 더불어 70년이 넘는 시간동안 구축되어온 유물론적 세계관의 변화를 추구하는 두 가지 축을 지향해야 한다. 복음 선포와 전도의 축이 무너지면 디아코니아 선교의 역량이 약화되어 오히려 불신과 선교의 목적의 상실을 가져오게 될 것이고, 디아코니아의 축이 무너지면 그리스도가 보여준 치유와 베품, 해방됨의 사역을 상실하게 된다. 한국 교회가 그동안 북한선교를 디아코니아나, 아니면 복음전도나 이분법적인 인식을 지양하고, 복음 선포와 회심을 기반으로 하여 이 두 사역을 필수불가분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인식하는 종합적 선교의 패러다임을 세워나가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 고 문 헌

- 김영동 (2016).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교회의 참여방향 연구. 안교성(편저), **독일 통일 경험과 한반도 통일전망: 신학적 성찰과 과제**. 서울: 나눔사.
- [Kim, Y. D. (2016). Churches' Strategy to Partake in the Peaceful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Ahn, Kyo Seong (Ed.) (2016) *Reflections on the Unification of Germany and Prospects for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ological Issues and Assessments*. Seoul: Nanumsa.]
- 김종서 (1996). 미국적 신앙의 뿌리와 공민종교의 성립. **종교학연구**, 15, 1-15.
- [Kim, C. S. (1996). The Root of American Belief and the Establishment of Civil Religion. *Journal of Religious Studies*, 15, 1-15.]
- 김현웅 (2002). 북한 교회 재건 전략. **인문과학논총**, 7, 83-110.
- [Kim, H. U. (2002). A Strategy to Re-establish Churches in North Korea. *Humanities Research*, 7, 83-110.]
- 박현신 (2021). 팀 켈러의 센터처치와 북한교회. **기독교와 통일**, 12(2), 7-47.
- [Park H. S. (2021). A Study of Tim Keller's Center Church and Churches in North Korea. *Christianity and National Reunification*, 12(2), 7-47.]
- 오영옥 역 (2006). **종교개혁 이후의 독일교회사**. Johannes W. (1993). *Kirchengeschichte Deutschlands Seit Der Reformation*.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Oh, Y. O. (2006). *History of German Churches after the Reformation*. Seoul: Korean Society of Christian Literature. Trans. Johannes W. (1993). *Kirchengeschichte Deutschlands Seit Der Reformation*. Mohr Siebeck: Tuebingen.]
- 안승오 (2019). 통전적 선교신학의 한계점 소고. **복음과 선교**, 45(1), 45-80.
- [An, S. O. (2019). A Study on Limitations of the Holistic Mission. *Evangelical Missiology*, 45(1), 45-80.]
- 오영훈 (2004). 독일통일과 동독교회의 역할: 통일 후 동독교회의 사회적 기능변화와 그 원인. **독일어문학**, 12(3), 399-419.
- [Oh, Y. H. (2004). The Role of Churches in the DDR for the Reunification of Germany and Changes of Social Role of Churches in the East after the Reunification and Their Reasons. *German Literature*, 12(3), 399-419.]
- 이범성 (2005). 독일교회의 민족통일운동에 대한 역사신학적 고찰-에큐메니칼 관점에서. **선교와 신학** 15, 101-124.

- [Lee, B. S. (2005). The Theological and Historical Reflection on the Reunification Movement of German Churches from an Ecumenical Perspective. *Mission and Theology*, 15, 101-124.]
- 이봉기 (2001). 서독의 대동독 경화거래 및 지원에 관한 연구: 분단 이후 통일까지(1945~1990), **통일문제 연구**, 13(1), 271-306.
- [Lee, B. G. (2001). A Research on the Financial Aid and Exchange from West Germany to the DDR: from the Division of Germany and its Reunification, 1945-1990. *The Korean Journal of Unification Affairs*, 13(1), 271-306.]
- 이상조 (2017). 공법(公法)상 주(州) 교회인 독일 개신교회의 역사적 형성과정 그에 따른 교회체제의 특징. **장신논단**, 49(2), 159-186.
- [Lee, S. J. (2017). The German Protestant Church as the Constitutional Body of Public Law: Its Historical Development and Church-political Structure. *Korean Presbyterian Journal of Theology*, 49(2), 159-186.]
- 장수한 (2013). 슈투트가르트 죄책고백의 역사적 평가. **복음과 실천**, 51(1), 103-129.
- [Chang, S. H. (2013). Stuttgart Confession and Historical Evaluation on It. *The Gospel and Praxis*, 51(1), 103-129.]
- 정옥배 역 (2005). **현대사회 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 Stott, J. (1984). *Issues Facing Christians Today*. 서울: IVP.
- [Chung, O. B. (2005). *Issues Facing Christians Today*. Seoul: IVP. Trans. Stott, J. (1984). *Issues Facing Christians Today*. Basingstoke: Marshalls.]
- 정일홍 (2015). **독일교회를 통해 배우는 한국교회의 통일노력**. 서울: 범지출판사.
- [Jeong, I. H. (2015). *Efforts of Korean Churches for the Reunification of Korea Learning from German Churches*. Seoul: Beomji Publications.]
- 주도홍 (2005). 통일 전후 독일 교회의 문제와 과제. **통합연구**, 18(1), 65-92.
- [Joo, D. H. (2005). Facts, Problems and Assignments of the German Church Before and After the Unification of Germany. *Journal of Integrative Studies*, 18(1), 65-92.]
- 최무열 (2015). 독일교회 위기극복을 위한 비헤른의 인네르 미션과 디아코니아에 영향을 미친 제 요인들에 관한 소고. **복음과 선교**, 32(4), 221-257.
- [Choi, M. Y. (2015). A Study on the Innere Mission and Diakonia of Johann Heinrich Wichern as a Way of Restoration of the Church of German in 19th Century. *Evangelical Missiology*, 32(4), 22-257.]
- 홍기영(2014). 선교적 교회의 관점에서 본 선교. **선교신학**, 36, 403-444.
- [Hong, K. Y. (2014). Mission Reviewed with an Idea of Missional Church. *Mission and Theology*,

36, 403-444.]

- 황대현 (2006). 16-17세기 유럽의 교파화 과정에 대한 연구사적 고찰: 사회적 규율화의 첫 단계로서의 교파화 과정 패러다임에 대한 독일 사학계의 논의를 중심으로. *역사교육*, 100, 293-321.
- [Hwang, D. H. (2006). A Historical Research Review on the 'Confessionalization' in the 16th and 17th Centuries in Europe. *History Education*, 100, 293-321.]
- Bebbington, D. W. (1989). *Evangelicalism in Modern Britain: A History from the 1730s to the 1980s*. London: Routledge.
- Evangelische Kirche in Deutschland, "Kirchengesetz über die Kirchenmitgliedschaft, das kirchliche Meldewesen und den Schutz der Daten der Kirchenmitglieder (Church law on church membership, church registration and the protection of the data of church members)," <https://www.kirchenrecht-ekd.de/document/3168>. 2021년 10월 20일 접속.
- Song, H. (2009). *American Methodist and Presbyterian Mission in Korea in the Face of the Challenges of the First Decade of the Japanese Occupation, circa 1910-1919*. Master Dissertation. Boston University, Boston, USA.
- Werner, D. (2007). "The Future of the Rural Church: Perspectives on Rural Evangelism in a German Context." *International Review of Mission* 96, 382/383, 296-305.
- Wolf, K. (2012). 'A Jump Ahead'; The Church as Creative Minority in Eastern Germany, *Theology Today* 68(4), 438-447.

독일통일과정에서의 동서독교회의 역할을 통해 본 북한 교회 세우기의 과제

A Critical Assessment of the German Churches Roles for the Unification of Germany for a New Approach for Building Christian Communities in North Korea

송 훈 (송실대학교)

국문초록

독일의 통일은 과거 냉전시대 강대국들의 이념갈등의 장벽을 무너뜨린 사건으로 기록되어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는 남북한 사회에게 희망과 역사적 교훈으로 여겨지고 있다. 심지어 독일통일과정에서 동서독 교회가 보여주었던 통일과 화해, 일치에 위한 노력들은 남북한 교회가 통일을 위해 감당해야 할 역사적 책무와 사역의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다. 하지만 통독 이후에 구 동독지역에서의 동서 갈등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과거 독일 통일의 주역이었던 동독교회는 이러한 갈등 속에서 교인들의 이탈과 주민들 사이의 비종교화의 도전 속에서 또 다른 위기를 겪고 있다. 이러한 구동독지역의 상황을 볼 때 통일에 이르는 과정뿐만 아니라 사회 통합의 과제 또한 매우 중요함을 배울 수 있다.

그리하여 통일과 사회통합이라는 민족적 과제를 마주하는 우리는 통일과정에서의 동서독교회의 역할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선교적 교회의 측면에서 북한 교회 세우기의 방법론을 재고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과거 북한 교회 재건을 목표로 한 북한선교의 복음의 일방성에 한계와 디아코니아 기관을 통한 선교를 분리되어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함께 진행되어야 할 선교적 과제로 인식한다. 그리하여 본 논문은 이러한 연구 목적 하에 북한 교회 세우기는 복음전도를 기반한 사회적 섬김의 방향성을 가져야 함을 주장하며 이를 역사적 연구를 통해 증명하고자 한다.

주제어 : 북한 교회 세우기, 복음전도, 사회적 책무, 디아코니아 선교, 통일, 화해